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40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선원 ●FAX: (031)470-3116



길을 묻는 이에게

제 783호 현대불교
2010년 5월 12일(음 3월 29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25

이 한 생애 알고 넘어가려면 오직 주인공에 놓고 가야

우리가 항상 이 마음공부를 하고 가고, 또 이끌어 간다고는 하지만 근본의 모든 것을 몰라서 잘 행하지를 못하고 있죠. 그리고 하루하루 죽음으로 다가가면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 상당히 급한 겁니다. 이렇게 급하고 필연적으로 해야만 하는 공부이기 때문에 참, 때로는 고개가 저절로 숙여지고 땅을 한없이 내려다볼 때가 있습니다. 그런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공부를 하고 가거나 안 하고 가거나, 삼천대천세계(三千大千世界)의 우리 마음들이 모두... 이 중세계라는 것이 그냥 이렇게 자유스럽게 살아가는 데가 아니죠. 얼마나 바위에 찢기고 얼마나 아픔을 당하면서 마찰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형국입니까? 피가 안 난다 해서 아프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만이 우리가 지상에서 이끌어 가고 또 지하로 떨어지지 않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거짓말이 아니라 지금 현실에도 그렇게 하고 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걸 생각하면 생과 사의 그 과정을 볼 때에 참혹한 일이 한두 건이 아니죠.

이 모두를 생각해 볼 때 마음공부는 필연적으로 꼭 해야만 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습니다. 그런 데 말입니다. 30년 만에 한 번씩 초파일 이 닦치면 초월일이 되는 날에 관찰을 하는 데가 있습니다. 어디서 관찰을 하느냐? 이 지구에도 범망이 있고, 북극에도 범망이 있습니다. 또 우리한테도 범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망을 찾아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찰은 '사왕천'에서 하죠. '사왕천'이라는 것은 '사'는 빼놓고, 즉 말하자면 숫자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니까 '사왕천'하면 동서가 되죠. 사왕천을 한데 합치면 '원식'이 되는데 이 '원식'이라는 자체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그래서 '사왕천이 관찰을 한다' 이라는 것은 바로 원식천에서 관찰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관찰을 해서 어디로 통하느냐, 즉 말하자면, 이 지구의 범망을 찾아서 북극으로 이 법이 통한다. 그래서 북극으로 통해서, 예를 들어 즉시 북두칠성으로 가면 은하계로 돌아서 우주까지 이게 통한다는 거죠. 얼른 말하자면 그렇게 된단 얘깁니다. 그러면 이 관찰을 이렇게 하면 그것은 누가 다루느냐? 지금 현재에 범관이 있죠? 우리 현실에서도 판사가 법으로 판단을 하듯이 그렇게 33천에 계신 부처님께서 검증을 합니다. 33천의 보살들이 검증을 해서 추천을 해 줄리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때입니다. 그때가 30년 만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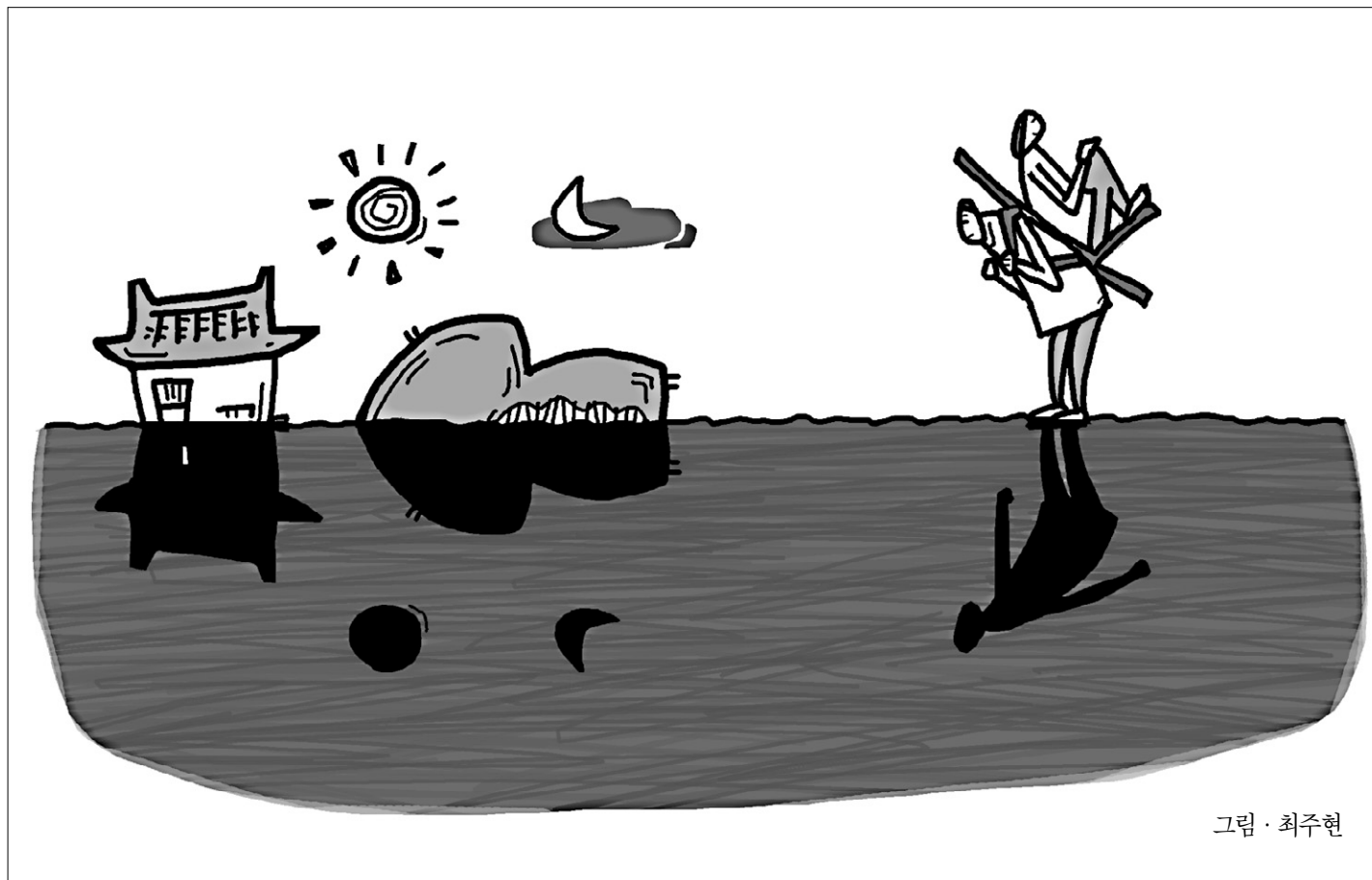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한 번씩 있는 그때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네들의 추천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지수화풍의 몸을 받아 가지고 항상 끌려 다니며 살면서 아픔을 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때야말로 여기에서 벗어나 큰 에너지의 모습으로 화(化)해서, 아픈 것도 모르고 자유스럽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를 맞출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밖에 없죠. 이게 말입니까? 그렇지 정말 중요하합니다. 그런데 이 세포 하나하나가 다 우리네 범망입니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한마디 할까요? 취직을 시켜 달라고 돈을 갖다 줘는데 "난 돈을 받을 수 없네." 하니까 "아무도 없는데 받으시죠." 그러니까 "너도 있고 나도 있지 않느냐? 그리고 허공도 있잖아." 이랬거든요. 그와 같이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서 알게 되면 이 세포에서 모두 다 알게 되죠. 세포에서 알게 되면 이 세포에서 통하는 어디든지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사왕천으로 다 들어가게 돼 있죠. 사왕천이라는 건 이 지구의

범망이니까. 지구의 범망입니다. 지구도 범망이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범망에서 직접 북극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것은 왜 북극을 통하느냐 하면, 바다도 북극에서 다 관리가 되니까 말입니다. 바다의 법도 역시 북극에 상응이 돼 있으니까, 거기서 직접 이렇게 올라가니까 말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약하게 쓰지 않아도 한 생 살고, 약하게 써도 한 생 살 거, 좀 좋게 살면 어떻습니까? 좀 좋게 생각하고 살면 어떻습니까? '자유스럽게 마음을 써라' 하고 사람으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면 좀더, 이 마음이 나쁘게 나오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바뀌어서 생각을 하고 이르면 좋을 텐데, 이거는 나오는 대로 그냥 내뱉어버리는 거예요. 조금도 참지 못하고, 나오는 생각을 안에서 조절을 해서 이렇게 참고, 좀 생각을 해서 던지는 게 한생각이거든요. 그리고 막 나오는 대로 말하는 게 그냥 생각이죠. 생각해서 잘 말하는 게 한생각이고, 그냥 나오는 대로 내뱉고 육화

고 화내고 이러는 게 바로 중생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웃어 가면서 해야 옳을지, 울어 가면서 해야 옳을지 모르는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마음을 왜 그렇게 해야만 되느냐? 그렇게 모두 보는 데가 있고 듣는 데가 있고, 위로 올려보내거나 아래로 떨어뜨리는 문제들이 있고, 매일 자기 자성이 자기를 관찰하고 이리저리 통하느냐? 자기 몸통이에 끌려다니지 마세요. 몸통이에 끌려다니면 몸통이의 노예가 되고 자기 자성에 끌려다니면 바로 중생이 됩니다. 이걸 자기 몸통이에 평생 끌려다니다가 결국 버리고 가요. 그 몸통이에 다 중생하다가 그냥 죽으면 그 애착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니까 '몸은 바로 내 종이다' 라는 얘기도, 얼른 쉽게 말해서 내 자성신의 종입니다. 몸을 자성신의 종으로 생각해야 좀 보살펴 줄 수도 있고, 아프면 낫게 할 수도 있고, 언짢으면 좋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봐 주는 거니까 몸의 노예가 돼서 끌려다니지 말라 이 소

립니다. 좀 어른스럽게 생각을 하라 이거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이 있고 잘살았다 하더라도 죽었을 때 보면, 거저를 쓰고 죽은 놈이나 허, 좋은 관 속에 들어가서 죽은 놈이나 죽은 건 똑같습니다. 그 애절한 거는 똑같아요. 그 모습이야 물로 가고 흙으로 가고, 바람으로 가고 불로 가고 이렇게 없어지면 그뿐이죠. 그렇지만 이 마음의 근본은 없어지려야 없어질 수가 없는 종자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지구라는 집도 벗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노예처럼 내 몸이 끄달리지 않아야 바로 그 몸에서 자기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수 있으니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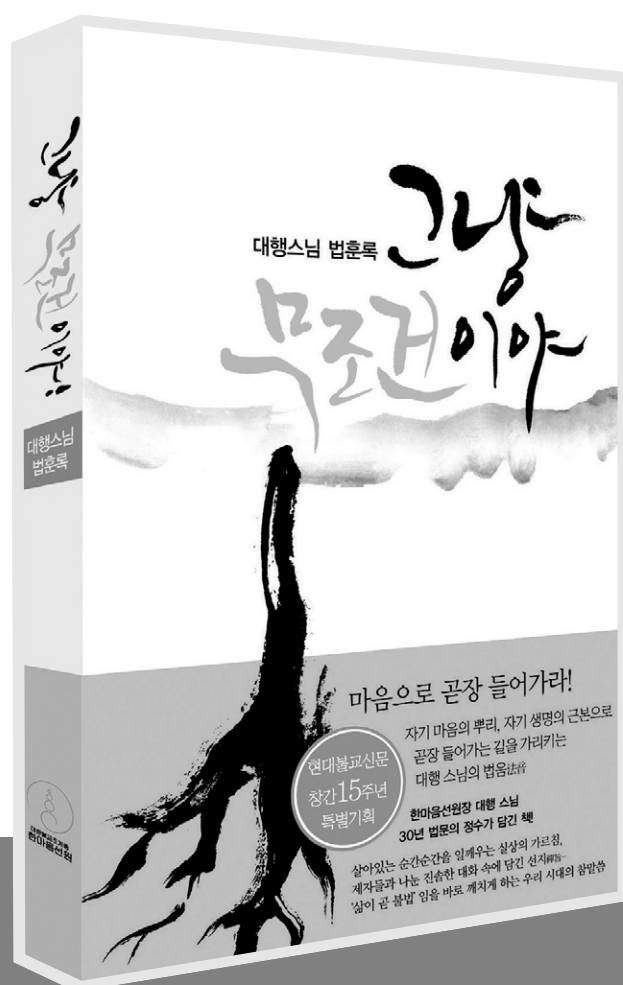
병원에서 보면 호흡이 제대로 안될 때 산소호흡기를 이렇게 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소보다도 더 강한 수소가 있지 않습니까? 수소는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만 생각했지, 그 수소가다가 어떡하면 살릴 수 있나 하는 생각들은 안 하죠. 이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만 해결이 됩니까 하면 이 중세계에서 모든 생명들이 다 증발해야 돼요. 우리가 전부 증발을 하든지, 불국토가 되든지 그래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한 철 사는 거 마구 살아가는 안 된다 이거죠. 마구 살아선 안 된다. 이 모습이 몇 알갱이나 살겠습니까, 이 모습이.

그런데 우리가 '관찰을 한다' 했을 때, 이 사왕천에서 관찰을 해서 또 원식천으로 가게 되면은 33천의 모든 보살이 검증을 해야 하고, 모두 검증을 해서 이게 북극으로 올라가면 또 다시 다른혹성, 즉 말하자면 우리 생명을 관리하는 북두칠성으로 가죠. 그리고 이 은하계의 별성들은 우리 마음의 근본과 더불어 같이 상응이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편리하게 자유스럽게 사는 분들이 아니다 이 소리입니다. 매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구에서 이렇게 살면서도, 지구가 큰 덩어리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걸로만 알지 속 내용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시죠. 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모르고 내 집에서... 이거 보세요. 이 집에서, 내 몸통이 집에서 살면서도 내 집 하나 제대로 못 가난단 말입니다. 그러고는 어떤 스님이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거 알기할부랄 일도 아닙니다. 지금 아무것도, 옆도 보지 말고 그냥, 그냥 자기 길만 뚜벅뚜벅 가도 먼 길입니다. 우리가 깨치면 한 찰나지만 깨치지 못하면 먼 길입니다. 여러분이 이 지구라는 집 속을 모르니까

26면으로 계속

마음으로 곧장 들어가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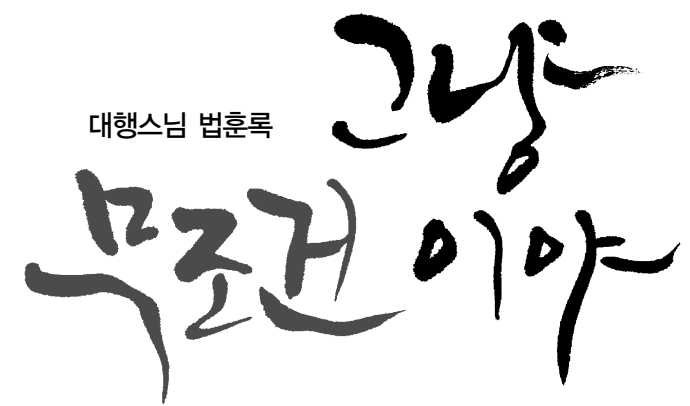
자기 마음의 뿌리, 자기 생명의 근본으로
곧장 들어가는 길을 가리키는
한마음 선원장 대행스님의 법음 法音

제자들과 나눈 진솔한 대화 속에 담긴 선지 禪旨 -
'삶이 곧 불법'임을 바로 깨치게 하는 우리 시대의 참말씀

우리는 일체의 경계를 돌로 보지 않고 자기의 깊은 내면에 던져버리는 수행이 꼭 필요합니다. 오로지 마음의 용광로에 넣기만 하면 됩니다. 주인공主人은 뜨거운 용광로입니다. 일체를 다 녹이는 용광로, 그 용광로가 우리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주문은 현불삼!
02)2004-8216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문 중에서



양장본 / 211쪽 / 값 11,000원

현대불교 현불삼 |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